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 푸리에(C. Fourier) 사상에서 열정, 열정의 계열, 열정인력법칙의 개념적 연구*-

박 주 원 (영남대학교)

이 글은 푸리에의 사상을 협동사회의 토대가 되는 ‘열정의 정치철학’으로 규명하기 위해 그가 제시했던 ‘열정(passion)’ 개념이 근대 문명사회의 ‘욕구’와 어떻게 다른지, ‘열정의 계열(serial passions)’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상호 구분되고 또 연결되는지, 그리고 ‘열정에 따른 행위(열정인력)(Attraction passionelle)’의 가능성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 글은 당대의 인간 이성과 욕구 관념에 대한 푸리에의 비판이야말로 근대 사회를 극복할 정치적 기초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협동적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철학적 토대임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푸리에의 열정 개념은 한 개인의 욕구가 다른 이의 욕구와 필연적으로 대립하고 투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던 홉스의 관점과 개 개인의 쾌락의 최대치를 통해 정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공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에게 욕구와 정념의 충족은 인간 개인에게서 비롯되고 구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의 열정과 관계 속에서만, 그 결속과 대조, 협동과 경쟁, 조화와 부조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비롯되고 충족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와서 억압된 욕구의 문제를 근대 권력의 중심문제로 보았던 프로이트, 마르크스, 푸코, 라캉의 사상은 이러한 의미에서 푸리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과 열정의 자유로운 배치와 사회적 연합에 기반하여 새로운 인간 행위의 기초를 제안했던 푸리에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가 개 개인의 욕구나 이익을 합산한 데 기초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다시금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샤를 푸리에, 19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협동사회, 열정의 정치철학, 인간 본성, 노동, 욕구, 열정, 열정계열, 열정인력의 법칙, 즐거운 노동, 팔랑주, 팔랑스테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2-B00004).

1. 서론: 열정(passion)의 정치 철학, 문제의 제기 및 기존 연구 검토

이 글은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의 유토피아 사상¹⁾을 협동 사회의 토대가 되는 ‘열정의 정치철학’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간의 욕구와 본성에 대한 그의 주요 개념인 ‘열정(passion)’, ‘열정의 계열(serial passions)’, ‘열정인력의 법칙(Attraction passionelle)’을 검토하고 그에게서 제시된 인간의 열정에 대한 개념화가 자유로운 노동, 매혹적인 노동, 즐거운 놀이로서의 노동이라는 행위 개념이나 성 해방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정치철학적 근거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의 앞선 검토에서 볼 때, 푸리에에게 근대 문명사회에서 노동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결과인 분배나 소유가 불평등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위하는 과정이 인간의 열정(passion)을 왜곡하고 억압하는데 있었다(박주원 2003, 156). 그에게서 욕구란 단순히 그 결과에 있어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서 유쾌하고 매력있게 영위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푸리에에게 근대적 노동의 극복은 인간의 자연스런 열정에 따라 노동이 배치될 때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²⁾

1) 유토피아 사회주의자(Utopian Socialists)라는 명칭이 1839년 제롬 블랑키(Jérôme Blanqui)에 의해 쓰여지기 시작한 연원에 대한 문제 및 푸리에와 오웬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문헌 및 의미에 대해서는 Cole(1987) 17과 필자의 글(2003) 150 각주 7) 참조.

2) 필자는 이미 앞선 글에서 푸리에가 제안했던 이상적 정치체인 ‘팔랑쥬(phalange)’가 분배나 생산의 제 원리에 핵심이 있기 보다는 감각의 도야와 열정의 실현을 통한 근대적 노동의 해방에 초점이 놓여 있으며 자유롭게 끌리는 감성적 행위의 사회적 재구성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해석한 바 있었다. 그 글에서는 ‘팔랑쥬’의 구성원리가 어떠한 근거로 노동을 자유롭게 즐겁게 만들며 인간을 자유롭게 협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즐거운 노동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푸리에 사상을 마르크스 사상의 재해석과 새로운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모색에 연결시켜보고자 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필자의 글 2003) 참조.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 인간의 ‘열정(passion)’이나 ‘욕구’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푸리에 사상은 대부분 19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만 이해되거나 또는 그가 제시했던 팔랑주 공동체의 분배원리와 공동주거 양식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다.³⁾ 1980년대에 들어와 푸리에 사상이 한국 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의 사상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대부분 19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포괄적인 수준으로 소개되어왔다.⁴⁾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마르크스 사상으로 연결되는 사회주의 사상사의 흐름에서 푸리에 사상을 바라보았으며, 이에 따라 푸리에 사상은 다만 과학적 사회주의에 의해 극복 발전되어야 할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왔다.⁵⁾

1990년대 이후에는 푸리에 사상이 가진 독자적인 의미가 부각되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현실 사회주의의 쇠퇴이후 전개된 이러

3) 푸리에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및 푸리에 사상을 사회주의, 아나키즘, 집산주의, 상호부조론, 협동조합주의 등으로 해석하는 연구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2003, 153-6) 참조. 푸리에 사상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푸리에 연구 경향의 역사적 변화와 푸리에의 열정 개념을 프로이트와의 관련 속에서 해석하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4) 콜(G. D. H Cole)의 「사회주의 사상사」나 린드만(A. S. Lindemann)의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란다우어(C. Landauer)의 「유럽 사회주의」 등 1980년대에 한국에 번역되거나 소개된 푸리에 연구는 그의 사상에 대한 독자적인 논의가 아니라 대부분 마르크스 사상에 이르는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 소개된 것이었다.(Cole, 1987; Lindemann 1993; Hobsbawm 1993; Landauer 1959; Geoghegan 1987; Hertzler 1965; Hollander 1991; Kanter, 1972; Kovaly 1975 참조)

5) 푸리에 사상에 대한 명칭이 ‘유토피아 사회주의 혹은 공상적 사회주의(utopischer Sozialismus)’, ‘맑스 이전 사회주의(vormarxistischer Sozialismus)’, ‘초기 사회주의(Frühsozialismus)’라는 상이한 용어로 호명된 바의 정치적 함축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2003, 152) 각주 4) 참조.

6) 1990년 이후 유영수, 최갑수, 한기영의 논의는 사회주의 사상에서 유토피아 사상이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주었지만, 그들의 연구 또한 19세기 사회주의라는 일련의 흐름에서 푸리에의 사상을 조망한 것이었다. 김재기의 논의는 푸리에 사상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었다. 그의 연구는 마르크스와 푸리에 사상이 가지는 관련에 주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었다.(최갑수 1991; 김진 1993; 김재기 1993; 김영한 1994; 한기영 1997; 유영수 1998; 오광호 1992 참조)

한 연구 경향은 그의 사상을 다만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한정해서 해석하는 대신 ‘즐거운 노동’이라는 푸리에 사상의 근본적 요소를 현대에 와서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대적 노동을 극복한 새로운 노동행위와 새로운 정치사회 형태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학계에 일정한 이론적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가 제시한 팔랑주라는 이상사회의 생산과 분배의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혹은 팔랑주 공동체의 공동주거양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물론 이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 푸리에가 말년에 집필한 「사랑의 신세계」를 근거로 그의 사상을 성해방의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한 연구가 제시되면서 그의 사상에서 욕구와 열정이 갖는 현재적인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변기찬 2001, 2003, 2011 참조). 그럼에도 푸리에 사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passion’개념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푸리에 사상에서 ‘passion’개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의 사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푸리에 사상의 연구에서 별로 주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학계에서 푸리에 사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그가 제시한 이상적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구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이제까지의 푸리에 연구들에서 passion개념은 대부분 ‘정념(情念)’으

7) 특히 1980년대 후반 건축학계에서는 유토피아적 도시계획이나 이상적 도시계획에 대한 주제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푸리에의 사상을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푸리에의 팔랑주의 공동주거 형태인 팔랑스테르의 구조에서 보여지는 공동체적 생산과 분배양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유병림 1988; 최상철 1988; 양윤재 1988 참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머포드(L. Mumford)나 베네볼로(L. Benevolo) 등의 논의가 소개되었다.(Mumford 1965; Benevolo 1967 참조)

로 번역되어 왔는데, 念이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용어이기에 이미 대상과 주체의 이분법적 분리가 해소되어 있는 푸리에의 passion개념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번역이라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열정(熱情)’이나 ‘정열(情熱)’이 passion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자발성과 능동성을 더 잘 나타내주는 것 같다.

이 글은 푸리에의 사상을 단순히 사회주의 사상사의 역사적 흐름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라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정치학의 의미있는 주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에서 새로운 협동적 정치체의 기초가 되는 ‘열정’ 개념이 가진 근대 비판의 정치 철학적 의미가 논의되어야 하며 ‘열정들이 상호 구분되고 연합하는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푸리에 사상을 협동사회의 토대가 되는 ‘열정의 정치철학’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특히 첫째, 그가 제시했던 ‘열정(passion)’ 개념이 근대 문명사회의 ‘욕구’와 어떻게 다른지, 둘째,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일정한 계열을 갖는다고 할 때 그러한 ‘열정의 계열(serial passions)’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상호 구분되고 또 연결되는지, 셋째, ‘열정에 따른 행위(열정인력)(Attraction passionelle)’의 가능성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은 인간의 열정과 관련한 푸리에의 사상을 20세기 이후 욕구의 억압에 대한 문제 제기과 성 해방에 바탕하여 새롭게 제기된 현대 정치사상과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와서 푸리에 사상의 계승은 한편으로는 마르크제(H. Marcuse)에 의해 성의 해방과 감성의 해방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르(A. Gorz)의 노동 거부를 통한 노동해방으로 나타났다(Geoghegan 1987, 98-126).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성과 본능의 해방을 통해 노동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나 아니면 노동을 거부하고 자기 가치를 새로이 만듦으로써 인간 본

래의 욕구와 본성이 회복되는 길이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인간의 본래적 욕구, 열정과 노동 간의 관련의 고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Geoghegan 1987, 129-31). 이러한 맥락에서도 푸리에의 사상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푸리에에게 있어 노동의 해방이란 반드시 스스로의 열정에 따른 즐거운 행위일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성의 해방’과 ‘노동의 해방’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⁸⁾

푸리에의 사상은 그가 죽은 후에야 주목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1840년대 이후부터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현실에서 전개되었다. 푸리에주의자들은 1832년 기관지 『르 팔랑스테르Le Phalanstère』를 발간하였고, 1836년에는 『라 팔랑주La Phalange』를 1843년에는 『평화적 민주주의』 잡지를 발간하여 푸리에사상을 선전하였으며 프랑스 각지에서 강연집회를 열어 더 많은 지지자를 모으고자 애썼다. 1848년에는 푸리에주의의 지지자가 3700명에 이르렀다. 이는 그 시기 생시몽 파의 쇠퇴와 대조되었다. 푸리에사상의 영향은 특히 1840년에 거의 모든 사회주의자에 미치고 있다(Manuel & Manuel 1979, 182-9).

특히 푸리에주의의 영향은 단명한 1848년 프랑스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절정에 이른다. 사회개혁을 위한 열정을 불러오는데 중요한 힘이 된 푸리에주의자 콩시데랑(Victor Fourier Considérant)⁹⁾은 공화국의 대의원이었으

⁸⁾ 필자의 글(2003) 168 각주 37) 참조. 만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한 성찰을 했었다면, 사회주의의 역사는 좀 더 자유롭고 풍부한 감성으로 채워졌을지도 모른다.

⁹⁾ 본래 푸리에의 문하생 가운데 하나였던 콩시데랑(Victor Fourier Considérant: 1808-1893)은 푸리에가 죽은 다음 해, 푸리에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사회주의의 운명(1834)』, 『사회단체파의 선언(1841)』, 『구세계에 앞선 사회주의(1848)』 등의 책을 썼는데, 그는 초기 저술활동을 통해서 구 정치사회는 소멸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초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사회의 협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종전의 태도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적 정당이 사회적 관점을 버리고 정치적 관점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1843년 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프랑스에서 혁명이 실패하자 그는 1852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지역에 공동체를 설립하였지만, 1854년 그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그의 견해도 대단히 온건한 것으로 변

며 루이 블랑(Louis Blanc)은 프랑스 내각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 푸리에주의의 지도자였던 도어티(Hugh Doherty)는 1840년에 정기간행물 『모닝 스타(The Morning Star)』지를 발간하였고, 1851년에는 푸리에의 저서의 한 부분을 번역하고 그의 교의에 대한 요약과 함께 다룬 『인간 정신의 열정(The Passions of the Human Soul)』이라는 책을 펴냈다(Cole 1987, 87). 미국에서는 브리스베인(Albert Brisbane:1809-1890)이 푸리에사상을 담은 자신의 저서 『인간의 사회적 운명(Social Destiny of Man)』을 1840년에 출판했고, 1840년에는 그의 사상적 전파에 입각하여 30여개에 이르는 공동체가 건설되었다.¹⁰⁾

이렇듯 푸리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건설은 19세기 중반 지속적이고 폭넓게 시도되어갔다.¹¹⁾ 그러한 많은 실험에서 팔랑주의 구성원이 단일한 계급구성이거나 균질된 구성원으로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실험들이 단명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됐던 까닭은 팔랑주의 구성원들이 열정에 대한 일체의 억압에 반대한다는 구심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팔랑주 실험들이 부딪혔던 한계나 문제점은 공동체 내부의 분파나 계급간의 갈등으로 지적되지 않는다(Landauer 1959, 78; Cole 1987, 162). 오히려 이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은 상이한 주체간의 갈등이나 혹은 또 다른 권력의 발생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에 대한 회의

모하였다. 그러므로 풍시태랑에 의해 푸리에 사상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그 영역을 넓히며 성장했지만, 그러한 과정이 푸리에 사상의 희석이었는지 발전이었는지의 문제는 심각하게 반문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¹⁰⁾ 칸터(R. M. Kanter)에 따르면, 미국의 공동체 건설에서 특히 1840년에서 1860년 사이의 공동체는 주로 푸리에의 영향과 종교공동체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1841년에서 47년까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Brook Farm은 리플리(G. Ripley)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북미지역의 Phalanx는 1843년에서 1856년까지, 위스콘신의 Phalanx는 1844년에서 1850년까지 실험되었다. (Kanter 1972, 3-8)
- ¹¹⁾ 팔랑주 공동체는 1932년경부터 프랑스와 미국에서 건설이 시도되어 북미 팔랑주를 비롯하여 30여개의 팔랑주 건설이 시도되었으며, 1840년에서 1850년 사이에는 41개의 실험적 공동체가 세워졌다. (Benevolo 1967, 60)

로 인한 공동체의 해산이나 의미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르크스가 푸리에에게 근본적으로 제기하였던 비판점도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푸리에가 ‘노동이 단순한 유희나 오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의 심각성에 대해 경박한 태도를 취했으며 심오한 문제를 ‘순진한 여공처럼 소박하게’ 취급했다고 비판한다. 노동의 놀이로의 변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곡이나 창작과 같은 가장 자유로운 일조차도 따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Marx GR, 611).¹²⁾

새롭게 푸리에 사상이 주목된 것은 1960년대에 와서 인간 욕구와 열정에 대한 푸리에 논의의 재해석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급진주의 이론을 정초하려는 New Left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는데(Geoghegan 1987, 21), 그것은 푸리에의 욕구와 열정 개념이 100년이 지난 후에야 ‘유토피아적’이 아닌 ‘현실적인’ 주제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매뉴엘(F. E. Manuel)과 마르쿠제(H. Marcuse), 브라운(Norman O. Brown) 등은 푸리에 사상에서 인간의 욕구와 감성의 해방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근대 문명이 가하는 인간 내면의 고통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푸리에와 프로이트 사상과의 관련을 주장하였다(Brown 1959; Manuel 1962, 195-213; 1965, 83-7). 마르쿠제는 푸리에가 자유로운 사회와 자유롭지 못한 사회를 구분한 최초의 논자라고 평가하고¹³⁾ 푸리에의 독특한

12) 그럼에도 푸리에 사상이 마르크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또한 노동에 대한 푸리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탈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되는 인간의 노동이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믿음은 많은 부분 푸리에의 노동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푸리에 사상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를 인간의 내적인 욕구의 표현으로 보고 자신의 자연스런 욕구와 열정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필자의 글 2003, 168).

13) “푸리에의 저작이 전위적인 좌파 지식인들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자신들도 인정하듯이, 푸리에야말로 자유로운 사회와 자유롭지 못한 사회 간의 질적인 차이를 명백히 드러낸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노동이 놀이가 되는 사회의 가능성에 관해, 즉 사회적 필요노동조차 해방된 진정한 인간의 욕구와 조화되어 조직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길 두려워하지 않았다.”(Marcuse 1982, 78)

사상이 정치적 자유와 욕구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⁴⁾ 그리고 그는 푸리에 사상에서 ‘매력적인 노동’ 개념을 재조명하여 노동으로부터 쾌락으로의 전회라는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켜 이를 ‘감성의 정치’로 제안하고 있다.¹⁵⁾

물론 매뉴엘(F. E. Manuel)과 마르쿠제(H. Marcuse)의 푸리에 해석의 문제를 비롯하여 라이히(W. Reich)의 성정치와 푸리에의 성해방의 관련, 고르(A. Gorz)의 노동 개념과 푸리에의 매혹적인 노동 개념의 관련,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과 푸리에의 열정 개념의 관련에 대한 문제들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또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하는 독립된 주제이지만, 푸리에 사상에서 열정에 따른 자유로운 인간 행위의 정치철학적 근거를 검토하는 이 연구의 작업은 간접적으로나 20세기 후반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프로이트 이래 마르쿠제, 라이히, 푸코, 라캉 등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 욕망이론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그것이 가지는 근대 비판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4) 급진적 프로이트주의자 가운데 하나인 폴 로빈슨(Paul A. Robinson)은 마르쿠제가 억압 없는 사회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 철학자로 프로이트를 평가하면서 그러한 사상의 앞선 원천을 니체, 푸리에, 셸러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한다. (Robinson 1969, 151)

15) 마르쿠제(H. Marcuse)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육체는 실행원칙을 통해 탈성감화(desexualization)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욕의 완전한 성기중심화, 생식기화가 강화되었고 그 결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잠재력은 왜곡되고 축소되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육체의 재성감화(resexualization)만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Marcuse, 1966, 217-8) 그는 오직 다차원적으로 재성감화 된 육체만이 노동의 도구로 전락하는 바에 저항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감성과 노동행위의 밀접한 관련에 주목하고 있다.

2. 문명과 열정의 관계: ‘문명’, ‘산업주의’, ‘문명화된 노동’에 대한 비판

상업 활동에 종사했던 푸리에는 근대 ‘문명’이 갖는 병폐의 원인이 상업으로 인해 비롯된다고 보았다.¹⁶⁾ 그러나 그가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명이라는 이름의 사회’가 ‘지극히 허위적이고 복잡한 그리하여 실제로는 필요로 하는 수의 20배로 늘리는 개인적 경쟁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병폐를 용인하는 문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문명이 역사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문명이 만들어 낸 대규모의 산업, 고등과학 및 예술은 협동사회로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철이라고 이야기한다(Fourier 1829, 341). 그렇기에 그는 많은 낭만주의자들이 공장노동에 대한 비판으로 기계파괴나 농촌의 목가적 노동을 찬양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자신의 사고를 구분하고, 이는 곤궁함을 낳을 뿐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문명은 특히 ‘산업주의’라는 문명, 혹은 ‘상업’이라는 방식의 질서가 만들어 낸 문명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푸리에는 근대 문명사회의 모순이 ‘산업의 분산 세분화’와 ‘상업의 허위성’(Fourier 1829: 324, 341, 376)에 있다고 지적한다.¹⁷⁾ 그렇다면 상업

16) 1793년 리옹(Lyon)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마르세유(Marseille)를 통해 들어오는 면화, 쌀, 설탕, 커피 등의 물품을 중개하는 활동을 했던 그는 당시 리옹의 정치적 혁명상황을 경험했고, 집정정부 하에서 더욱 현저해진 산업불황과 주기적 인플레이션, 빈곤의 심화를 목도하면서 근대 산업주의의 병폐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Lindemann 1983, 65-6). 1798년 어느 날 파리의 한 식당에 들른 푸리에는 그곳의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리옹에서 사과 백 개의 가격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업과 산업주의에 커다란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Fourier 1971, 17).

17) 따라서 푸리에에게 ‘협동사회’란 이러한 상업의 기만성이 없어지게 되는 사회이다. “협동사회적 산업이 갖는 밝은 측면의 하나는 상업제도에 진실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협동사회는 개인적이고, 비연대적이고, 허위적이고,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경쟁제도를 동업조합적이고, 연대적이고, 성실하고, 간단하고, 보충할 수 있는 경쟁제도로 대체함에 의해 상업상의 방종 즉 협잡성을 띠게 마련인 경쟁이 매달렸던 노동력과 자본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Fourier 1829, 354).”

은 어떤 점에서 허위적이며 사회를 모순된 것으로 만드는가? 그는 문명의 모순을 ‘상업’ 혹은 ‘산업’에서 찾고 있지만, 그 까닭을 단지 상업이 생산에 복무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기생적 영역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시몽과 비교된다. 그 결과 생시몽이 대안적 사회의 가능성을 생산적인 계급의 조직화에서, 다시 말해 ‘산업가’에 의한 ‘산업조직’에서 찾게 되었다면,¹⁸⁾ 푸리에에는 상업이 개인들의 삶을 경쟁시키고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위해 기만된 생각과 욕구를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상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들의 자유 경쟁’이 야기되어 인간의 본래적인 열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노동이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며, 노동을 하여도 부유해지기는커녕 더욱 빈곤해지는 사회’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푸리에에게 문명사회는 모든 것이 ‘전도된 세계(le monde a rdbours)’¹⁹⁾이다. 그는 근대 사회의 병폐를 ‘문명사회의 산업의 악순환’으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1. 전도된 소비, 2. 전도된 유통, 3. 전도된 경쟁, 4. 전체이익과 개인이익의 불일치, 5. 분배계열의 불평등이라는 다섯 개의 전도로 설명하고 있다.(Fourier 1829, 369-97)

전도된 소비와 전도된 유통을 설명하며 그는 ‘생산의 결과가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유한자만이 생산물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소비가 생산

18) 생시몽의 사상은 일체의 비생산적인 기생계급에 대항하여 생산계급의 계획된, 생산수단이 통제된, 산업공동체라는 점에서, ‘산업가’ 중심의 ‘산업’에 대한 조직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근대 과학과 문명의 발전과 관련한 생시몽의 사상과 관련하여 콜(G. D. H. Cole)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비록 생시몽은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러한 것들을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간주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 변화라는 것은 근대의 과학적 발전의 소산이며, 인간진보의 근본원인은 역사의 최고창조자로서 위대한 발견자와 관련된 지식의 발달이라는 것이다(Cole 1987, 63).”

19) 김계기에 따르면, 푸리에가 문명세계를 ‘전도된 세계(le monde a rdbours)’로 보았던 이는 정념의 충족이라는 목적과 물질적 생산이라는 수단이 뒤바뀐 것을 비판한 것이며, 이러한 어법은 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계기 1993, 38).

자의 행복에 돌아가지 않게 된다(Fourier 1829, 378)’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매해, 전 생애동안 더러운 작업장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한 가지 일만을 되풀이하고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난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통이 전도되어 생산물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탐하고, 또한 상인이나 도매업자라 부르는 중간상인에 의한 매점, 투기매매, 상습적 사기, 강요, 파산 등의 책략으로 산업적 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된다(Fourier 1829, 378)는 것이다. 분배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전도가 관련된다. ‘문명사회에서는 사회의 부가 증대함에 따라 배분의 계열은 지정된 비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쪽에서만 증가하고 다른 한 쪽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빈곤계급은 언제나 제로에 머문다. 빈곤계급은 부의 증대에 따른 배분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그로 인한 궁핍만이 증가할 뿐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도된 체계가 서로 순환되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과 소비, 유통, 경쟁, 분배 등에서의 전도현상이 서로가 서로를 야기 시키며 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근대 산업주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노동자는 노동을 헐값으로 팔게 되고, 상인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익을 얻기 힘들게 되므로 속임수가 한층 늘어나게 되며(Fourier 1829, 378), 이러한 전도된 경쟁은 그 결과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낳고 산업의 발전에 의해 인민을 오히려 빈곤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명이 가진 역설을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문명에 있어서는 빈곤이 풍요 그 자체에서 생긴다(Fourier 1829, 381).”

이러한 산업사회의 경쟁과 분배의 모순은 빈곤계급만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헛되이 낭비한다. 경쟁제도 아래에

서는 지속적인 수요를 보장받기 위해 생산자들이 제품을 쉽게 소모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²⁰⁾ 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할 수록 더욱 빈곤해진다는 푸리에의 비판은 왜 그가 노동을 통해 부와 즐거움이 동시에 향유되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게 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병폐가 자유방임적 경쟁에서 야기된다고 보았던 것으로 미루어, 그에게서 올바른 산업의 체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협동적인 조직과 계획이 요청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푸리에에는 산업사회의 이러한 전도 현상들이 소비자 분배상의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의 인간들을 서로 간에 필연적으로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가 ‘전체 이익과 개인적 이익간의 불일치’에 대해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언급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산업주의 본질적인 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는 동포시민이 병에 걸리기를 원하며 검사는 각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건축가는 큰 화재가 나기를 바라며 유리점 주인은 유리창문이 박살날 우박이 쏟아지기를 원한다. 양복점이나 양화점은 매상을 위해 색이 쉬 바래는 천이나 잘 헤어지는 질 나쁜 가죽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사람들 모두가 반복하고 있는 일이다....바로 이런 식으로 문명사회의 산업에 있어서는 온갖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전체 대중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反)협동사회적 산업, 즉 전도된 세계가 초래하는 필연적 결과이다.(Fourier 1829, 378)”

이를 통해서 볼 때, 푸리에에게서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²⁰⁾ 이 점에 대해서도 푸리에에는 그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점 자체보다 그 생산 상의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보다 즐거운 것에 향유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팔랑주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의류와 가구와 같이 내구성이 있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제조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전도는 빈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이를 속여야 하고 다른 이의 불행을 바라며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데 놓여 있다. 인간과 인간의 결합은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해가 타인의 이해와 반목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그를 속이고 이기도록 자신의 본성조차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²¹⁾ 그러므로 그에게서 ‘산업’과 ‘문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물질을 진보시키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푸리에의 인식은 다음의 표현으로 집약된다.

“산업은 그 진보에 의해 행복의 기초를 만들기는 하지만, 행복 자체를 만들지는 못한다.(Fourier 1829, 381)”

그러므로 푸리에에게서 노동의 비참한 상태는 노동의 본질에 있기보다는 차별과 기아의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일만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문명 사회가 왜곡시킨 노동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의 고통이 노동 자체의 속성이 아니며, 근대 문명의 산업주의가 노동활동의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욕구를 억압함으로써 그 즐거움과 부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산업주의가 만들어낸 노동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욕구와 열정의 전환과 재구성이 요청되었던 것이다²²⁾

21) 이러한 점에서 매뉴엘(F. E. Manuel)은 푸리에의 사상이 계몽주의 시기 진보와 철학이 함께 상생한다는 볼테르의 논리를 비판하고 문명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억압한다고 본 점에서 루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Manuel & Manuel 1979)

22) 푸리에에 정치적 개혁을 통해 근대 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관점을 단호하게 견지했다. “문명은 지상의 흑사병이다. 병균이 질병에 필요하듯이 악은 문명에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행동에 의해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악을 공고히 할뿐이다.(Fourier Selected Texts, 162)”

3. 열정(passion) 개념과 열정 인력(Attraction passionelle)의 법칙

푸리에에 따르면, 열정(passion)이란 숙려와 반성에 앞서서 자연에 의해 생겨나며 이성이나 의무나 편견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존속하는 충동, 즉 인간의 욕구이다(Fourier 1829, 398). 그렇기에 ‘본성은 왜곡될 수는 있지만 파괴될 수는 없다.’ 인간본성은 후천적인 교정이나 억압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박주원 2003, 156). 그래서 푸리에에는 그는 심지어 잔인함이나 공격적 성향 등의 본성도 그 자체로 악은 아니며, 다만 어떠한 본성을 잘못 이끌어 그것을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게 하는 사회조직에 있다고 보았다(Fourier, Selected Texts: 303-5).²³⁾

이렇듯 이성이 인간에게 온 것이라면 열정은 신에게서 온 것이라 했던 푸리에의 관점은 데카르트 이래 디드로나 엘베시우스 등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이어져 온 열정에 대한 견해와 반대되는 것이었다. 열정 혹은 정념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찾으려했던 데카르트의 관점은 당대로서는 혁신적인 일이었지만, ‘정념이 원인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원인을 가져다주는 것은 영혼 그 자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인식(Descartes 1967, 972)’이라 정의함으로써, 정념의 행위를 인간에게 오류를 초래하는 근원 중 하나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었다(변기찬 2011, 240-1). 그러나 푸리에에는 열정이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이며 열정에 따른 행위야말로 인간 사회의 가장 이상적 형태라고 정의함으로써 당대의 관념을 비판했던 것이다.²⁴⁾

푸리에에게 사람들의 죄와 고통은 인간의 나쁜 열정이나 사악한 본능

²³⁾ 이렇게 본다면 선한 본성이나 도덕도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학자들이 도덕이라 불리는 가르침에 고착되어 있기에 도덕이 금지하고 있고 악덕의 부류로 몰고 있는 자연의 충동인 열정의 문제에 서투르다고 비판한다.(Fourier 1829, 386-7)

²⁴⁾ 변기찬은 “데카르트를 비롯한 기존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정념을 세계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던 것과는 달리 푸리에에는 그 정념을 인간의 자아와 타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였다(변기찬 2011, 245)”고 지적한다.

때문이 아니라 반(反)사회적인 산업주의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보여지는 왜곡된 열정의 형태는 인간의 열정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그 인간의 열정이 잘못된 사회적 배치에 의해 기형화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푸리에는 그 사회의 원리가 인간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열정에 따라 행위하도록 배치되고 조직되는 바를 이상으로 삼았다.

푸리에는 열정에 따른 협동 사회 건설의 필연성을 ‘인력적 우주’의 성질이라는 자연관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인간 각 개인의 본래적인 열정에 따라 이끌리는 사회조직의 원리, 그것이 바로 ‘열정인력(Attraction passionelle)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는 뉴턴이 물질세계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데에 자신의 원리를 비교하고(Fourier Selected Texts, 211-2)²⁵⁾ ‘열정인력(Attraction passionelle)의 법칙’을 모든 사회구성의 근본원리로 삼고자 하였다.(C. Landauer 1959, 37) 계통적 협동의 사회 이론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열정계열 없이는 산업적 매력, 비례적 배분, 인구의 균형 등의 기본요건을 못 채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Fourier 1829, 357-65)

푸리에는 인력이 인간의 원동력이며 우주와 인간을 움직이기 위해 신이 사용하고 있는 매개물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열정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인력을 전체로서 연구함에 의해서만, 인간, 우주 및 신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부주의로 인한 손

25) 그가 열정인력의 법칙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비유한 것은 또한 그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점 뿐 아니라, 결국 인간 사회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 우주의 원리, 신의 원리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체계 안에 있다는 그의 믿음을 전제한 표현이다. 다음의 구절은 그 통일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는 신이 지구와 태양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운동을 지배하는데 인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만이 인력에 의해 사회적 선으로 인도되는 행운을 박탈당할 수 있는가? 왜 우주의 체계에 단절이 있어야 하는가? 만일 보편적 조화, 인력이 우주의 행성과 지구의 동물에서처럼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만일 인력이 사회 매카니즘의 정점인 농업과 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신적 체계의 동일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Fourier, Selected Texts: 211-2)”

실은 메꾸어지고, 열정인력의 계산이 발견되며 그리하여 세계는 즉석에서 행복한 경지로 옮겨가게 된다.(Fourier 1829, 367)

그에게 사회란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과정 아니라 궁극적인 이상사회에 도달하기까지 마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과 같이 순환적인 진동 상태로 나아간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발전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진보나 이성, 합리성과 같은 개념들이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⁶⁾ 그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 만물이 통일과 조화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직선적인 것이 아니며 그 운동의 과정은 이중적이거나 이원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Fourier 1829, 326)

그에 따르면, 인류의 발전단계는 상승기와 하강기로 이루어지며 인류의 역사는 크게 여덟 단계로 나아간다; 1. 원시(에텐)시대, 2. 야만시대(무기력적), 3. 가장시대(소규모산업), 4. 미개시대(중규모산업), 5. 문명시대(대규모산업), 6. 보증주의Guarantism시대(半협동사회), 7. 연합주의socialisme시대(단순협동사회), 8. 조화주의harmonisme시대(복합협동사회)가 그것이다. 당대는 상승기 중 다섯 번째 단계로 야만의 시대에서 산업 문명의 시기로 이후 보증주의로 나아갈 것이라 그 발전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또한 그로부터 조화의 시기 혹은 복합적 연합(composite association)의 시기로 나아감에 따라 결국에는 개인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성숙한 존재가 되고 고도로 조직화되는 시기로 나아갈 것이라 논의하고 있다(Fourier 1829, 327).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문명 산업주의 시대 이후의 시대상으로 묘사된 보증주의Guarantism 시대가 정확히 어떤 역사적 단계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한다. 매뉴얼(F. E. Manuel)은 인류의 미

²⁶⁾ 매뉴얼(Frank E. Manuel & Fritzie P. Manuel)에 따르면, 푸리에는 역사의 발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진보개념이 실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기에, 계몽주의에서 찬양해왔던 이성이 가진 우월적 의미를 배격한다.(Manuel & Manuel 1979, 276)

래에 도달하게 될 보증주의(Guarantism) 단계에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할 권리(droit au travail)’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증은 자본주의 조직에 내재하는 커다란 부정의 원천을 제거할 것이라는 푸리에의 언급을 중시한다. 반면 콜(G. D. H. Cole)은 보증주의란 완전한 조화의 시기로 이르기 전의 다만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개인자본가들에 의해 착수될 수 있는 변형된 사회조직체로 해석하고 있다(Cole 1987, 85). 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마지막 발전단계로서 조화의 시대는 자유롭고 마음에 끌리는 노동행위가 영위되며 권력이 분권화된 사회조직 형태로서 ‘팔랑쥬(phalange)’가 제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역사관의 특징은 우주적 질서와 사회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며 그 발전의 방향을 직선적 발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강의 이중적이고 이원적인 단계를 통해 역사의 과정 또한 경쟁과 연대, 조화와 부조화,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서로를 밀고 가는 동력이 되리라 보았다는 점에 있다. 푸리에에게 역사는 그 목적에 있어서만 경쟁과 협동의 조화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했던 것이다.

4. 열정 계열(serial passions)과 열정의 충족 원리

푸리에에는 타고난 인간의 욕구와 열정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향유되는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삼았다.²⁷⁾ 그리고 한 사회와 역사의 발전도 인간의 자연스런 열정의 실현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푸리에에게 열정의 실현과 충

²⁷⁾ 또한 푸리에에는 각 개인의 욕구의 자연스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Fourier 1829, 386-7). 푸리에에는 각각의 구성원이 나름대로 열정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다양한 정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이상적 공동체는 인간이 선한 상태로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가진 다양한 특성이 유지되고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주원 2003, 157)

족은 반드시 다른 열정과의 연관과 대조를 통해,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른 열정과의 복합적 결합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고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푸리에의 열정 개념은 정념을 이성에 비해 불충분한 개념으로 파악해 온 데카르트적 관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욕구가 다른 이의 욕구와 필연적으로 대립하고 투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던 홉스(T. Hobbes)의 관점 또한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푸리에에게 열정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하기에 개개인에게 다양한 것이지만, 한 개인의 열정이 즐거움과 쾌락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열정이 타인의 그것과 일정하게 관련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홉스의 생각처럼 어떤 이의 즐거움이 반드시 다른 이의 고통을 수반하는 대립관계가 아니며, 즐거움과 고통의 감정이 그 사회에서 단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대립과 투쟁에서 야기되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욕구와 열정의 충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인 것으로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²⁸⁾

푸리에의 열정 개념이 반드시 열정 계열로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그는 협동의 사회이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열정 계열 없이는 마음에 끌리는 노동행위, 비례적인 분배 인구의 균형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의한다.(Fourier 1829, 394). 그렇다면 열정의 계열(serial passions)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해 열정들은 어떠한 원리로 관련을 맺게 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마음에 끌리는 노동(le travail attrayant)이 충동되고 전유되며 충족되고 변화하는 그러한 원리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12가지의 타고난 ‘열정의 계열’이 있다고 설명한다. 5개

28) 바로 이 점이야말로 푸리에 사상에서 열정에 따른 즐거운 노동의 가능성이 왜 개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이자 반드시 ‘사회적’ 연합의 배치로 제시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준다.

의 감각적 열정(sensitive passions)과 4개의 정서적 열정(affective passions), 3개의 분배적 열정(distributive passions)이 그것이다.²⁹⁾ ‘감각적 열정(sensitive passions)’의 계열은 촉각, 청각, 미각, 시각, 후각이라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표현되는 열정으로 온갖 감각적 쾌락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감각적 열정이 충동되고 충족되는 원리는 내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 목적은 오감의 쾌락과 윤택에 있다.(Fourier 1829, 400-1)

‘정서적 열정(affective passions)’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열정으로, 그 목적은 애정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 및 집단계열을 형성하게 된다. 정서적 열정계열을 이끄는 힘은 우정, 사랑, 야망, 가족애³⁰⁾로서 네 가지 형태의 집단을 형성하며 또 집단 내에서 이끌리는 마음에 그 열정이 충동된다. 어떠한 쾌락도 집단계열 안에 배치되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배적 열정(distributive passions)’ 혹은 ‘기제적 열정’³¹⁾은 근대 문명사회에서는 표출되기 힘들고 사회화의 메카니즘이 정착된 단계

29) 푸리에는 인간 열정의 체계를 12개로 언급하고, 또한 그것이 복합되고 결합되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념으로 조합되는 열정의 계열을 재료로 하여, 개인의 성격유형을 810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 유형에 따른 노동조직의 구성을 새로운 사회조직에 관한 그의 이론적 모델로 삼았다.(Manuel & Manuel 1968, 301-314) (필자의 글 2003, 158 재인용)

30) 정서적 열정 계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열정을 의미한다. 푸리에는 기존사회에서 이끌리는 정서적 열정에 사랑과 가족애를 포함시켰지만, 가족제도와 결혼제도는 인간의 열정을 속박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인 이상사회가 건설된 후에는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31) 푸리에는 분배적 열정의 계열을 가장 상세하고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배적 열정이 집단계열의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는 분배적 열정이 충동되는 인력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열정의 활동에 있어서 균형을 보유했고자 바랄 것이나, 인간의 12개의 정념 하나하나가 서로를 방해한다. 그 때문에 그들을 억제할 의도를 소지한 도덕이라는 이름의 과학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억제한다는 것은 메카니즘화하거나 인위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를 규칙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외적 조화, 결국 인력의 제 3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의 제 3의 목적은 제 열정의 내·외적 메카니즘이 된다.(Fourier 1829, 398-9).”

에서 나타나는 열정인데, 열정이나 성격과 천성을 보편적으로 통일하려는 데 그 열정의 목적이 있다.(Fourier 1829, 398) 이러한 분배적 열정의 계열은 문명사회(근대 산업주의 시대)에서는 표출되기 힘든 열정으로 협동의 사회화 메카니즘이 정착된 단계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Fourier 1829, 405)

이렇게 볼 때, 푸리에가 제시하는 12개의 열정은 12개 각각의 병렬적인 열정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 ‘정서’, 그리고 그 열정들을 결합하고 배분시키는 ‘분배’의 세 개의 열정 계열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 개의 열정계열은 각각 개별적으로 충족되는 감각적 쾌락,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정서적 쾌락, 상이한 열정들 간의 조화와 부조화 속에서 발생하는 쾌락을 뜻하는 것이다. 푸리에에게 열정의 체계는 단순한 12개의 열정이 아니라 인간의 개별성과 사회성의 양 측면과 열정들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양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히 12개의 열정들이 각각 독립된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접한 열정과의 관련과 대조 속에서만 충족되는 연합적인 것으로 보았기에, 12계열의 열정 가운데 열정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분배적 열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변덕열정(*la papillone*), 밀모열정(*la Cabaliste*), 복합열정(*la Composite*)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배적 열정의 첫 번째 열정인 변덕의 열정(*la papillone*)은 주기적 변화, 대조적 상황, 장면의 전환, 상쾌한 사건 및 공상을 품게 하고, 감각과 감정과를 동시에 자극하는데 적합한 신기한 것에 대한 욕구이다.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열심이 냉각되고 권태에 빠진다. 이같은 쾌락은 문명사회에서는 비생산적인 기능일 뿐이지만³²⁾, 협동사회 상태에

³²⁾ 푸리에에 산업에 휴식을 마련하는 것은 산업을 촉진하는 것이 되리라 파악한다. 노동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휴식에 의해 종종 완화되지 않으면 지나친 행위가 되리라는 것이다. 힘에도 비판자들은 항상 문명체제의 습관이나 잣대에 의해 이를 판단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Fourier 1829, 409)

는 쾌락의 다양성을 매력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노동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로 다른 두 열정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사람들이 지치거나 열의를 잃게 되기 전에, 단시간의 작업에 의해 그리고 새로운 쾌락의 선택에 의해 그들의 활력을 지속하게 한다.(Fourier 1829, 417) 그렇기에 변덕의 열정에 따른 노동의 원리는 팔랑주에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전환되는, 다양하게 변화 가능한 작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시간이 짧은, 변화에 풍부한 작업이 가져오는 성과는 물질과 보건 위생 면에서의 균형과, 열정에서는 제 성격의 조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³³⁾

분배적 열정의 두 번째 열정인 밀모열정(*la Cabaliste*)은 모의하고 경쟁하는 열정으로 영광을 둘러싸고 서로 싸우며 우수한 집단들 사이에 질투와 경쟁을 일으키는 욕구이다. 인접한 뉘앙스 사이의 자연의 일반적 법칙이며, 협동사회적 조화에 있어서는 조화와 마찬가지로 부조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접한 집단과 더 나은 성과와 명예를 두고 다투고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열정과 매우 유사한 작업 집단과 군(*groupe et série*)을 형성하여 당파를 형성하고 모의함으로써 그 집단 내부로는 깊은 결속을 친근함을, 인접한 집단과는 경쟁과 열의를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협동사회에서는 집단 내부의 모의와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높은 성취와 성과를 가져오고 산업사회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능가할 것이라 보았다.(Fourier 1829, 410-2)

분배적 열정의 세 번째 열정인 복합열정(*la Composite*)은 감각 및 영혼의 쾌락들이 동시에 느껴지며 결합하며 생기는 열정이다. 비록 여러 즐거움이 결합된 것일지라도 모두 감각에 관한 것으로만 구성되거나 모두 영혼에 관한 쾌락으로만 구성된다면 그것은 복합열정이 아니다.(Fourier 1829, 413) 이러한 세 개의 분배적(기계적) 열정을 통해 협동사회질서는

33)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아무리 대립하는 성격의 소유자들끼리도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때문에 문명사회에 있어 친구끼리도 이반시키는 이해관계는, 협동사회에서는 적대자일지라도 결부시키는 것이다.(Fourier 1829, 418)”

각각의 작업 집단과 군에 우정과 대조, 협동과 경쟁, 조화와 부조화, 개별적인 성취와 전체적인 완성이라는 네 가지의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Fourier 1829, 414)

다시 말해 밀모의 열정은 노동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를 같이하는 동질적인 성원과 함께 모여 하나의 집단(groupe et série)과 군을 이루어 모의하여 노동하게 만들며, 그에 따라 사회에는 작업과 낚앙스가 유사한 집단들이 인접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된다.³⁴⁾ 하지만 변덕의 열정이 자연스레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에서 짧은 시간만 일하고 다른 일로 전환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접 집단 내부에는 동질감과 우정이 생기며 집단 구성원 내부에는 결속력이, 인접한 집단들 간에는 상당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푸리에는 이러한 ‘경쟁’ 및 ‘부조화’³⁵⁾가 자연적인 열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와 집단 구성원 내부의 결속력을 형성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협동 사회’를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열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공동체 전체는 경쟁 상태에 있는 광범위한 노동 분화로부터 노동의 유인이 있음으로 해서 유익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음으로 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협동’ 만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공동체와 ‘경쟁’ 만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주의적 방임사회 양자 모두를 넘어서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4) 이렇게 다양한 노동, 경쟁, 협동에서 오는 만족은 인간본성의 다양한 정념을 만족시켜 주며 상이한 즐거움의 혼합을 누리게 해준다. 이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의 작업 군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조직되는 배치가 팔랑스테르(Phalanstère) 중앙의 공동장소에 있는 ‘정념 거래소(bourse)’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선 글(2003, 161) 참조

35) 푸리에 사상에서 협동적 사회의 기초는 ‘타인을 사랑하라’는 박애주의나 도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노동활동이 타인과 맺는 자연스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념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다양하게 전환하며 협동과 경쟁을 체험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할 뿐 아니라, 매번 바뀌는 작업계열로 인해 고정된 경쟁상대나 고정된 경쟁심이 생기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필자의 글 2003, 161 각주 25)재인용).

5. 결론: 협동사회의 기초로서 욕구와 열정의 의미

푸리에에게 열정이란 인간 개개인에게 다양한 것이며 자유롭게 충족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인간의 욕구로서 충동되거나 충족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자신의 열정이 다른 이의 열정과의 사회적 관련 속에서만 비로소 충족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열정 개념은 공리주의의 전제와 비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푸리에에는 당대의 공리주의적 견해를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원자화된 개인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거부했다. 그가 보기에 욕구와 정념의 충족은 인간 개인에게서 비롯되고 구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의 열정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결속과 대조와 협동과 경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비롯되고 충족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적 욕구 개념이 사회의 쾌락 최대치를 근거로 개개인의 욕구를 제한해야 할 정당성을 도출하는데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열정은 잘못된 사회적 관련 속에서 왜곡될 수 있을 지언정 제한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푸리에에는 근대 자유주의 철학의 욕구 개념 뿐 아니라 자코뱅 역시 혁명의 ‘일반의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욕구와 열정에 제한을 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열정은 자유주의의 공리에 의해서건, 자코뱅의 일반의지에 의해서건 억제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타인의 그것과 연관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구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개발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푸리에에는 협동사회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 사회관, 우주관을 설명하며 인간은 본래 자신의 열정에 따라 행위하며 살아야 한다는 열정인력의 법칙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한 측면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자유와 연대, 경쟁과 협동, 조화와 부조화, 상승과 하강, 자연과 사회의 이중성을 인간 열

정의 특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기초로 그는 억압된 열정을 자연스레 서로의 관련 속에서 표현하고 또 다른 서로의 열정을 개발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이야말로 근대 산업주의 문명의 노동에 왜곡되고 기형화된 불행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푸리에의 관점은 근대의 원자론적 노동 중심적 인간관을 넘어 인간의 감성과 열정에 기반 한 새로운 인간상의 기초에 대해 논쟁이 불러일으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이 글은 당대의 인간 이성과 욕구 관념에 대한 푸리에의 비판이야말로 근대 사회를 극복할 정치적 기초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협동적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철학적 토대임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근대 산업사회 문명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폐해가 인간의 욕구와 열정을 왜곡하고 억압한다는 데에서 찾았던 푸리에의 사상은 한 세기 후 프로이트 이론으로 다시금 등장한다. 근대 산업의 병폐를 그 불평등함이나 부도덕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억압과 불행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는 푸리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인간의 열정, 욕구의 문제를 근대 산업사회의 왜곡된 노동에 핵심적인 문제로 보았던 푸리에의 사상은 욕망, 감성, 문화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바라보는 현대 정치사상의 연원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욕구의 문제나 가치법칙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은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제출되고 있다. 노동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은 1. 노동시간 단축 자율시간의 확대, 체계에 대한 생활세계의 확대, 2. 가치법칙의 거부 자율노동, 자기가치화, 노동거부, 즐거운 노동, 자발적 가난 3.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 거부 노동자 자주관리, 지주종업원제, 4. 생산과 소유의 연대-생산과 소유의 공적 통제 확대, 공공화, 협동조합 등의 이론과 운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비와 향유의 측면에서도 1. 사용가치의 직접 교류 -지역화폐 2. 호혜적 시장의 창출

공정거래무역, 생활협동조합의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20세기에 와서 욕구의 문제는 프로이트와 푸코 이후 정치학에서 주요한 주제로 전개되고 있다.

푸리에에게서 나타나는 ‘열정’의 정치철학은 개별적 인간의 효용으로 인간의 욕구를 해석하고 서로간의 욕구 충족 과정을 대립과 투쟁으로 보는 근대적 관념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근대의 노동 중심적 인간관을 넘어 감성과 열정에 기반 한 새로운 인간상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효용 중심적인 행위관을 넘어 인간의 욕구가 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구성되고 개발되고 충족되는 또 다른 사회적 연합의 구성 원리를 이끌어내는데 일정한 이론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가 개개인의 욕구나 이익들을 합산한 데 기초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다시금 성찰하고 논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3년 10월 22일 접수, 11월 11일 심사완료, 11월 28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Fourier, Charles, 1829.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etaire*, Paris: 1846 이문창 譯 『산업적 협동사회적 새 세계』,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_____, 1971. *Design For Utopia: Selected Writings of Charles Fourier*, trns by Julia Franklin & Frank Manuel. New York.
- _____, 1983. *The Utopian Vision of Charles Fourier: Selected Texts on Work, Love, and Passionate Attraction*, trans & edited by Jonathan Beecher & Richard Bienvenu.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Beecher, Jonathan, 1986. *Charles Fourier: The Visionary and His Work*, Berkeley.
- Bauman, Zygmunt, 1976. *Socialism: the active utopia*, London: Allen and Unwin.
- Benevolo, Leonard, 1967. *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Judith Landry (trans.)
M.I.T Press
- Bloch, Ernst, 1986. *The Principle of Hope*, Cambridge Mass.: MIT Press.
- Brown, Norman, 1959.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History*,
Connecticut: Wesleyan Univ. Press.
- Cole, G. D. H., 1962.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London, 1962. 오
방석 譯 『사회주의 사상사 1』 서울: 신서원, 1987.
- Geoghegan, Vincent, 1987. *Utopianism and Marxism*, London: Methuen & Co.
- Hertzler, Joyce Oramel, 1965. *The History of Utopian Thought*, (New York: Cooper
Square Publishers, INC.
- Hobsbawm, Eric J., 1982. "Marx, Engels and Pre-Marxism Socialism" Eric Hobsbawm
(ed.) *Marxism in Marx's Day*, The Harvester Press.
- Hollander, Paul, 1991. "The Socialism of the Imagination: Its Mystique and
Prospects."
Modern Age, vol. 34, No. 1. Fall. p.28
- Kanter, Rosabeth Moss, 1972. *Commitment and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Kovaly, Pavel, 1975. "Marxism and Utopia," Peyton E. Richter (ed.), *Utopia/Distopia?*,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 Landauer, Carl, 1959. *European Socialism* Univ. of California Press.
- Lindemann, Albert. S., 1983.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 Yale Univ. Press. 오주환,
진원숙 譯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경북대 출판부, 1993.
- Manuel, Frank E. 1962. *The Prophets of Paris*, Cambridge, Mass.
_____. 1965. "Toward a Psychological History of Utopias",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Manuel, Frank E. (ed.), 1965.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Manuel, Frank E. & Manuel, Fritzie P. 1979. *Utopian Thought in the Western World*,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 _____, 1968. *French Utopias: An Anthology of Ideal Societies*. New York.
- Marcuse, Herbert, 1966.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Beacon Press. 김인환 譯, 『에로스와의 문명』, 나남, 1996.
- _____, 1969. *An Essay On Liberation*, Boston: Beacon Press. Chap. 1 A Biological Foundation for Socialism?
- _____, 1970. "The End of Utopia", in *Five Lectures*, Boston: Beacon Press.
- Mumford, Lewis, 1965. "Utopia, The City and the Machine," Frank E. Manuel (ed.)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Praeger, Frederick, A., 1968. *Matrix of Man - An illustrated History of Urban Environment*, 최종현 외 譯 『도시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3.
- Riasanovsky, Nicholas V., 1969. *The Teaching of Charles Fourier*, Berkeley, 1969.
- Richter, Peyton E.(ed.), 1975. *Utopia / Distopia?*,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 Robinson, Paul A., 1969. *The Freudian Left*, Harper & Row Publishers.
- Taylor, Keith, 1982. *The Political Ideas of the Utopian Socialism*, London.
- Ulam, Adam, 1965. Socialism and Utopia, F. E. Manuel (ed.)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Yassour, A., 1983. "Communism and Utopia: Marx, Engels and Fourier" *Studies in Soviet Thought*, No. 26.
- 김영한, 1994. "유토피아주의" 『서양의 지적운동 I』, 서울: 지식산업사.
- 김재기, 1993. "푸리에의 사회철학의 기본원리" 『사회철학 대계 2』 서울: 민음사.
- 김진, 1993. "블로흐의 희망철학과 유토피아론" 『사회철학대계 2』 서울: 민음사

- 노명식, 1993. “19세기 유럽의 시민계급” 『시민계급과 시민사회: 비교사적 접근』
한울
- 박주원, 2003. “푸리에에서 맑스로? 맑스에서 푸리에로: ‘팔랑쥬(phalange)’, 즐거운
노동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 변기찬, 2001. “푸리에의 팔랑스테르(phalanstère)와 여성의 성적 해방” 『프랑스사연
구』 제5호 _____, 2003. “푸리에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제49집.
- _____, 2011. “샤를 푸리에의 정념 - 조화 혹은 사회성을 향한 욕망” 『석당논총』
제49집.
- 양윤재, 1988. “한국의 이상향과 서구의 이상도시”, 『터전』 창간호, 서울대 환경계
획연구소
- 오광호, 1992. 『프랑스 제3공화정 전기 사회주의 연구』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 유병림, 1988. “이상의 공간적 표상의 문제”, 『터전』 창간호,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육영수, 1998. “유토피아 사회주의” 김영한 엮음 『서양의 지적운동 II』 서울: 지식
산업사
- 최갑수, 1991. “초기 사회주의에 대한 재검토” 한국서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변천』
- 최상철, 1988. “유토피아 사상과 도시계획”, 『터전』 창간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
구소
- 한기영, 1997. 『초기 사회운동의 이념』 서울: 신서원.

The Politico-Philosophical basis of Utopian thoughts in 19th century
: A Study on the Concept of 'passion', 'serial passions' and
'Attraction passionelle' in Fourier

Park, Joo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tico-philosophical ground of Fourier's utopian thoughts to define it as political philosophy of passion, a base of cooperative society. I will review the concepts of 'passion', 'serial passions', 'Attraction passionelle' in Fourier. He conceptualize the passion as free labor, attractive labour, amusing play and it might be related with human labour or sexual liber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at Fourier's achievement was to go beyond Enlightenment cliches on the natural goodness of humanity by radically re-defining the good and its origins. It also argues that Fourier's criticism toward human reason and theory of human need is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which provide new cooperative political community, overcoming modern society.

Political philosophy of passion in Fourier also has critical references to criticize modern interpretation of human need which focuses on individuals utility. Indeed, one of this paper's aims is to draw attention to aspects of his thought that would be relevant to contemporary theory of need. Through his work, we can initiate new criticism on dominant contemporary concept that individual interests makes politics.

Key Words: Charles Fourier, 19th Century, Utopian Socialism, New cooperative community, Political philosophy of passions, human nature, labour, need, passion, serial passions, Attraction passionelle, Phalange, Phalanstère